

소외와 아노미

김진영*

목 차

- I. 머리말
- II.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구조적 관점
- III.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심리학적 관점
- IV. 요약 및 논의

I. 머리말

소외와 아노미(anomie)는 현대사회의 제영역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사회과학의 제반 문헌에서 중심적인 주제의 하나가 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외와 아노미라는 개념은 그 원천이나 의미들에 있어서 명확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체적 상황과 인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잘 묘사해주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사상사의 측면에서 볼 때 소외와 아노미는 사회학이론의 양대 전통이라 부를 수 있는 급진적 전통과 보수적 전통에서 각각 강조되어 다루어진 주제들이다. 여기서 급진적 전통이란 마르크스(K. Marx)의 이론을 축으로 하는 사회학이론의 전통으로서 사회문제의 근원을 경제제도의 차원에서 찾은 견해이며 동시에 급격한 혁명적 방법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반면 보수적 전통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안정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의 규범체계의 규제력의 상실 또는 약화로 말미암아 개인의 무한정한 욕구체계를 통제할 수

* 인문대학 전임강사

없을 때 생겨난다고 보는 입장으로 뒤르켕(E. Durkheim)이 그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소외는 급진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아노미는 보수적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뒤르켕의 이론에서 연원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²⁾

마르크스와 뒤르켕은 소외와 아노미 개념을 각각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조사를 증시하는 일단의 현대사회학자들에 와서는 소외와 아노미를 경험적으로 여하히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특히 시맨(M. Seeman)의 소외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소외와 아노미의 사상사적 전통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노미 개념을 소외의 개념에 포괄시켜 경험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³⁾ 또 스롤(L. Srole)은 아노미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나타내는 아노미 아척도를 설정하여 경험적 연구의 폭을 넓혀 주었다.⁴⁾ 그리하여 시맨과 스롤 이후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취급하고 소외와 아노미를 야기하는 변수와의 관련성을, 또 소외와 아노미로부터 야기되는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전개되었다.

소외와 아노미를 그 원천(sources)과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⁵⁾와 조직에서의 구조적 특성⁶⁾을 중요한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소외와 아노미로

1)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서울:法文社, 1974), pp.144~7.

2) 아노미개념의 연원을 뒤르켕에게서 찾는다는 異論의 여지가 없겠으나 소외의 개념의 연원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소외의 개념이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마르크스에 이르러서부터라 할 수 있다. 소외개념의 연원에 대한 논자들의 입장은 鄭文吉, 「疎外論研究」(서울:文學과 知性社, 1976), pp.17~23을 참조할 것.

3) M.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4 (Dec. 1959), pp.783~91.

4) L. Srole,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n Exploratory Study", *A.S.R.*, Vol. 21(Dec. 1956), pp.709~16.

5) *Ibid.*; A. H. Roberts and M. Rokeach, "Anomie, Authoritarianism, and Prejud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1 (Jan. 1956), pp.355-8; E. L. McDill, "Anomie, Authoritarianism, Prejudice and Socio-Economic Status: An Attempt at Clarification", *Social Forces*, Vol. 39 (Mar. 1961), pp.239-45; D. G. Dean,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S.R.*, Vol.26 (Oct. 1961), pp.753~8; R. Middleton, "Alienation, Race and Education", *A.S.R.*, Vol.28 (Dec. 1963), pp.973~7; W. Erbe, "Social Involvement and Political Activity: A Replication and Elaboration", *A.S.R.*, Vol.29 (April 1964), pp.198~215; M.E. Olson, "Alienation and Political Opin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29 (summer, 1965), pp.200~12.

6) A. G. Neal and M. Seeman, "Organization and Powerlessness: A Test of the Mediation Hypothesis", *A.S.R.*, Vol.29 (April 1964), pp.216~26; R. Blauner, *Alienation and Freedom: the Factory Worker and His Indust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M. Aiken and J. Hage, "Organizational Alienation: A Comparative Analysis", *A.S.R.*, Vol.31 (August 1966), pp.497~507.

부터 야기되는 사람들의 태도 또는 행동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태도 또는 행동⁷⁾, 인종적·종교적 편견⁸⁾, 학습 및 지식추구⁹⁾, 정신질환¹⁰⁾, 출산력¹¹⁾, 음주행위¹²⁾ 등과 같은 소외와 아노미의 여러가지 결과에 관심을 두어 왔다. 환언하면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바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외와 아노미 개념이 마르크스, 뒤르켕, 베버(M. Weber) 그리고 머튼(R. K. Merton) 등의 제학자들께서 여하한 사회구조적 현상을 지칭하는가를 살펴보고, 일단의 현대사회학자들에 이르러서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두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여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소외에 대한 논의는 여러 방향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논자들이 한정시키는 것은 소외논의 자체가 매우 복잡한 까닭에 사회학의 학문적 틀내에서 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II.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구조적 관점

소외와 아노미는 마르크스와 뒤르켕의 이론체계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틀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크스와 뒤르켕의 이론적 차이를 분석하여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르크스와 뒤르켕이 19C 유럽의 산업사회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사회를 보는 비판적인 토대는 상이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 D. G. Dean, *Alienation and Political Apathy: Social Forces*, Vol.38 (Mar. 1960), pp.185~9; W. Erbe, *op. cit.*; H. E. Ransford, "Isolation, Powerlessness and Violence: A Study of Attitudes and Participation in the Watts Riot", *A.J.S.*, Vol.73 (Mar. 1968), pp.581~91; J. D. Aberbach, "Alienation and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3 (Mar. 1960), pp.86~9.
- 8) L. Srole, *op. cit.*; A. H. Roberts and M. Rokeach, *op. cit.*; E. L. McDill, *op. cit.*
- 9) M. Seeman and J. W. Evans, "Alienation and Learning in an Hospital Setting" *A.S.R.*, Vol.32 (Dec. 1962), pp.772~82; M. Seeman, "Alienation and Social Learning in a Reformatory" *A.J.S.*, Vol.69(Nov. 1963), pp.270~84; M. Seeman, "Alienation and Knowledge-Seeking: A Note on Attitude and Action," *Social Problem*, Vol.20 (1972), pp.3~17.
- 10) E. G. Jaco,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nd Schizophrenia." *A.S.R.*, Vol.19 (Oct. 1954), pp.567~77; M.F. Lowenthal, "Social Isolation and Mental Illness in Old Age." *A.S.R.*, Vol.29 (Feb. 1964), pp.54~70.
- 11) H. T. Groat and A. G. Nea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Urban Fertility," *A.S.R.*, Vol.32 (Dec. 1967), pp.945~959; A. G. Neal and H. T. Groat, "Alienation Correlates of Catholic Fertility", *A.J.S.*, Vol.76 (Nov. 1970), pp.460~73.
- 12) M. Seeman and C. S. Anderson, "Alienation and Alcohol: The Role of Work, Mastery and Community in Drinking Behavior." *A.S.R.*, Vol.48 (Feb. 1983), pp.60~3.

마르크스는 당시의 자본주의적 사회를 인간의 사고를 협소하게 하고 願望의 성취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보는 반면에 뒤르켐은 그것을 인간의 욕망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하고 개인들이 그들의 사회적 조건들과 조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도덕적 무정부의 상태(a state of moral anarchy)로 판단한다.¹³⁾ 이러한 차이는 두 논자가 상이한 입장에서 자본주의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기본적 관점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생산과 분배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생산체계는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인간의 상황을 설정하여 준다. 또 분배체계는 생산물이 여하히 분배되어지는가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욕구, 지불능력, 부양의무, 혹은 비인격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¹⁴⁾ 이러한 생산체계에는 부득불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팔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복종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명령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서로 대립적 위치에 서게 된다. 이들간의 관계는 종국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을 혁명에 의하여 전복시킴으로써 대립적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이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즉 사유재산은 한편으로는 소외된 노동의 생산물인 동시에 다른 한편은 노동이 소외되는 수단이 된다. 때문에 사유재산은 소외된 노동의 필연적 결과이며 동시에 인간의 소외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소외는 화폐와 분업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¹⁵⁾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은 노동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창조적 능력(가치있는 것을 생산하는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노동의 결과로서 얻어진 생산물에 대해서 금전적 가치가 부여됨으로써 노동자는 그의 노동결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더우기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금전적 가치가 생산물은 물론 노동자 자신에게도 부여되어 노동자는 생산상품처럼 취급되어진다. 생산물은 낯선 존재로 출현하며 생산자와는 독립된 힘을 발휘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노동의 소외된 생산물은 "상품물신주의"(the fetishism of commodities)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화폐는 인간과 인간관계까지도 살 수 있는 위력을 지녀 인간을 그의 진정한 노동활동으로 부터 유리시키며, 인간의 잠재능력의 실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전문화된 분업 역시 소외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천이다. 자본가는 생산과정에서 전문화와 분업에 의하여 인간의 노동을 세분화시킴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13) S. Lukes, "Alienation and anomie", in Ada W. Finifter, (ed.), *Alienation and the Social System* (New York: John Wiley Sons Inc., 1972), p.24.

14) M. Abrahamson, *Sociological Theory* (N. J.: Prentice-Hall, Inc., 1981), p.66.

15) *Ibid.*, pp.70~1; 鄭文吉, *op. cit.*, pp.78~88; K.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in E. Fromm, *Marx's Concept of Man* (New York: Frederick Unger Publish Co., 1961), pp.93~109.

더욱더 특수하고 한정된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기계에 더욱 예속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전문화되고 반복적인 작업들로의 분업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창조 욕구의 충족을 단절시켜 버린다. 이제 일은 인간에게 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을 성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의 일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과된 노동일 뿐이다.

뒤르켐에 있어서 분업은 그것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사회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¹⁶⁾ 분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회성원의 결속력은 동질성에 기초를 둔다. 즉 사회성원들은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의 토대위에 공통의 가치와 관심을 공유하고 강력한 집합의식에 근거하여 행동을 한다. 그러나 분업의 정도가 고도화되면서 사회체계의 능력은 증대하고 기계적 연대를 특징짓던 복잡하게 분업화된 부분들간의 유대는 상호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의 기초하에 전체로서의 사회로 통합되는, 이른바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를 형성한다.

뒤르켐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부분들간의 유기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분들간의 상호관계를 적절히 맺어줄 수 있는 절차나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때에 적절히 발달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화된 부분들간의 관련성이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때 소위 아노미적 분업(anomic of division of labor)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 아노미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복잡한 사회내에서 전문화된 부분들간의 관계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이 분명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뒤르켐은 「자살론」(Suicide)에서 아노미개념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회분업론」(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에서의 그것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어로, 또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행됨에 따라 공통의 신념과 가치에 근거한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 더 이상 사회질서의 토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과도한 개인주의적 욕구와 감정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규범체계가 더 이상 개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한 지나친 욕구의 상승은 개인을 사회의 통제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어 그 결과 개인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이다.¹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뒤르켐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의 아노미는 각기 다른 사회통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업론에서는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이, 그리고 자살론에서는 규범적 통합(normative integration)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즉 아노미적 분업은 사회내의 전문화된 부분들간의 기능적 통합이 약화된 상황을 지시하고, 아노미적 자살은 규범적 통합의 약화로 인하

16)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 Simpson,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60)

17) *Ibid.*, pp.364~8.

18) E. Durkheim, *Suicide*(林煥燮譯, 「自殺論」, 서울: 三省出版社, 1977), pp.202~18.

여 발생하는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다.¹⁹⁾ 뒤르켐의 아노미적 개념이 설명력 있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아노미적 자살을 논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르크스와 뒤르켐의 이론체계에서 소외와 아노미가 발생하는 구조적 상황을 보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마르크스의 소외와 뒤르켐의 아노미는 윤리적·정치적 지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이 두 개념은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은유(critical metaphors)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적 설명틀로서 사용되는 면에서는 상이하다. 아노미는 사회체계에서의 통제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적용된다. 유럽사회의 문화적 규제는 개인의 욕구체계를 통제하는데 비효과적이어서 개인들은 문화적 지향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노미는 무규범성, 혹은 무질서한 사회적 조건,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의 규제력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아노미적 사회에서 일반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기주의, 무의미감, 무목적성 등과 같은 것들이다.²⁰⁾

소외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노동활동을 통한 개인의 잠재능력의 실현을 저해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뒤르켐이 강조하는 사회통제의 확대는 마르크스에게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아노미 개념이 질서있는 기능적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관심을 지향한다면 소외개념은 개인의 자기확장, 더 나아가 사회체계의 적응적 변화에 대한 장벽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²¹⁾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가 사회변동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급진주의적 성향을, 뒤르켐은 질서의 문제(problem of order)에 관심의 방향을 두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마르크스의 소외와 뒤르켐의 아노미 개념은 당시 유럽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적 자기 이해(self-interest)에 사로 잡혀있는 이기주의를 비판한다.

뒤르켐은 전통적으로 국가·교회·길드 등의 도덕적 규약에 의해 억제되어 오던 자기이해적인 경제적 활동은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목적 그 자체가 됨에 따라 아노미는 만성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적 목표에 대한 자기이해적 추구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이같은 성향자체가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한정한 욕구의 추구는 도덕적 규제력의 약화 내지는 붕괴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된 사회의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통제를 통하여 개인의 자기이해적 욕구를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이해가 사회의 동기력(motivating force of society)으로 나타남

19) 韓完相, *op. cit.*, pp.328~32.

20) J. Horton, "The Dehumanization of Anomie and Alienation: A Problem in the Ideology of Soci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15 (Dec. 1964), p.285.

21) *Ibid.*, pp.285~6.

22) E. Durkheim, *Suicide*, *op. cit.*, pp.214~6; J. Horton, *op. cit.*, pp.286~7.

으로써 인간은 그의 사회적 활동, 즉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나아가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되어져 왔다고 본다. 이 같은 자기이해의 성향은 소외된 사고의 한 표본이 되는 것이다.²³⁾ 그는 인간의 노동활동과 생산물의 어떠한 物化(reification)도 인간의 본성과 모순되므로, 인간본성의 참다운 실현은 물화와 억압이 없는데서만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자기이해의 원리는 자본가 지배계급의 술책과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소외된 분업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²⁴⁾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적 차이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서도 나타난다.²⁵⁾

먼저 마르크스는 인간과 사회의 이원주의(dualism)를 거부하고 인간본성의 활동과 사회적 활동은 노동이라 하여 인간과 사회의 능동적인 관계를 주장한다. 인간의 참모습은 참다운 사회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의 규제력이 개입되면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유는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뒤르켐에 있어서 사회는 그 구성 부분인 개별적 인간과 상이하고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²⁶⁾ 따라서 뒤르켐은 인간과 사회의 이원적 관계, 즉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간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둔다. 사회는 질서와 통제의 원천이며 개별적인 인간들과는 독립적인 실체인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둘은 상이한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는 인간을 창조적 잠재력을 지닌 노동인(homo laborans)으로 보는 반면에 뒤르켐은 한편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자아추구적이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통제와 도덕성의 원천인 사회에 의해 억압되고 조정되는 이중적 인간(homo duplex)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²⁷⁾

그러면 소외와 아노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둘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소외는 혁명적 변화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를 종식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고유한 특성인 사유재산의 존재, 잉여의 수탈 및 전문화된 분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를 인간화시키고 인간이 참다운 노동활동을 경험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르켐은 아노미가 혁명적 방법이 아닌, 강화된 사회규범의 설정과 내면화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통제의 확장을 통하여 홉스적 인간(Hobbesian man)을 사회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소위 유기적 연대성을 강조하면서 사회통제와 도덕적 규율의 수행을 위해 직업집단(occupational group)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국가와 개인사이에 위치하는 직업집단은 도덕적 원리들을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확인시켜줌으로써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공동체적 생활중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국가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업집단의 분권화를 통해서이다.²⁸⁾

23) J. Horton, *op. cit.*, p.287.

24) *Ibid.*, p.288.

25) *Ibid.*, p.289.

26) E. Durkheim, *Suicide*, p.285.

27) J. Horton, *op. cit.*, p.290.

28)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op.cit.*, p.390.

소외와 아노미 개념을 위에서 논의한 마르크스와 뒤르켐보다 확대하여 현대산업사회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한 이들로 베버와 머튼을 들 수 있다.

우선 베버는 산업사회의 핵심적 구조로서의 관료제(bureaucracy)에 관심을 둬으로써 소외의 원인을 마르크스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그는 소외를 경제제도의 한 측면에서만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분야의 모든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사회·문화적 삶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본다.

베버에 있어서 관료제는 인간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내재적인 경향으로서의 형식주의, 복종, 전문적 기술, 규칙 및 절차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관료제하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역할에 부수된 요구사항(role requirements)을 더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²⁹⁾ 따라서 관료조직에서의 합리적 행동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측면에 불과하여 모든 인간은 조직자체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점하고 있는 지위에 수반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창조적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은 관료제적 조직에 들어감으로써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만을 습득하게 되어 인생의 대안적 선택을 취할 자유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³⁰⁾ 이 점은 마르크스가 경제조직내에서 고도화된 분업이 인간의 의미추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로 소외가 출현하게 된다는 관점과 비슷하다.

그러나 베버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마르크스에게서 나타나는 경제제도내에서의 소외만이 아닌 현대산업사회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도의 관료제적 속성이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창조성을 속박하게 된다는 점이다.

베버는 소외를 산업분야내에서의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학자 등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경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거스(H. H. Gerth)와 밀즈(C. W. Mills)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임금노동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베버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경향의 하나의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 현대의 군인들은 폭력수단으로부터, 과학자는 탐구의 수단으로부터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베버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보다 일반화된 맥락하에 위치시키고 마르크스의 결론이 극화된 ‘특수한 사례’(dramatized special case)로부터 추출된 관찰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마르크스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경우 특수한 사례란 일련의 유사한 사례들 중의 한 사례로

29) H. H. Gerth and C. W. Mill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215~6.

30) S. M. Lipse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lass", in 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15 (New York: Macmillan Company and Free Press, 1968), pp.303~4.

보는 편이 낫다. 전체로서의 연계는 관료제하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경향을 예시하는 것이다.³¹⁾

베버는 관료제를 합리성과, 합리화과정을 비인격화 또는 구속적인 기계적 일상화 등과 동일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합리성은 개인적 자유와 대립적이다. 그는 관료제의 기계화와 일상화가 선택하고 형성하는 인간형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형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결여된 '일상적인 왜소한 창조자'(a petty routine creature)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³²⁾

베버가 관료제속에서의 일상화된 양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담해야 하는 긴장과 고통을 극복하는데 적용시킨 개념은 카리스마(charisma)이다. 카리스마는 모든 관료제적 지배, 즉 합리적 행위와 제도화된 일상화에 반대되는 개념이다.³³⁾ 관료제적 합리화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조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실마리로서 카리스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베버가 판단한 의미추구의 성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버에 의하면 인간이란 사회관계와 조직이 존립하게 된 연유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 즉 사회의 질서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려는 근본적인 욕구성향을 갖는다고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가 설정되어 있는 까닭을 해석하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질서를 저기 있는(out there)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존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이러한 인간의 의미추구의 노력은 삶의 전 과정에서, 모든 사회적 행위와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³⁴⁾

현대사회의 관료제적 합리화가 인간의 창조성과 능동성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자신을 관료제적 조직으로부터 구원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베버는 관료제가 인간행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철장(iron cage)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이 점에서 베버는 마르크스와 차이를 보인다. 둘은 현대적인 조직방법이 생산과 조직의 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했지만 이러한 세계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괴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소외를 인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로 가는 과도기적

31) H. H. Gerth and C. W. Mills, *op. cit.*, p.50.

32) *Ibid.*, pp.49~50; 관료제의 특성과 결과 및 합리성개념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M. Weber, *Economy and Society*, edited by G. Roth and C.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956~1005와 H. H. Gerth and C. W. Mills, *op. cit.*, pp.196~244를 참고할 것.

33) H. H. Gerth and C. W. Mills, *op. cit.*, pp.245~248.

34) 박영신, "사회변동과정과 사회운동: 분석적 개념으로서의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서울: 일지사, 1981), pp.13~14.

35) L. A. Coser,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慎繼慶外譯, 「社會思想史(下)」, 서울: 一志社, 1979), p.346.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비하여 베버는 자유로운 세계로의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버에 있어서 소외를 야기시키는 관료제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다.³⁶⁾

뒤르켐이 사회규범의 규제력의 약화를 나타내는 아노미 개념을 주로 자살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했지만 아노미 개념을 확대적용하여 일체의 일탈행위를 설명하고자 한 이는 머튼이다.

머튼은 사회실재를 문화구조(cultural structure)와 사회구조의 두 차원과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구조란 특정사회성원들이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적 가치체계로, 사회구조는 사회 혹은 집단의 성원들이 다양하게 관련되는 사회적 관계의 체계로 정의된다. 사회현실에서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제도화된 수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disjunction between cultural goal and institutionalized means) 현상을 머튼은 아노미라 규정하고 있다.³⁷⁾ 예컨대 물질적 성공이 문화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도 만큼 이를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노미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머튼이 아노미개념을 사회구조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뒤르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으나 서로 강조하는 초점의 방향은 매우 상이하다. 뒤르켐이 목표에 대한 규제력의 상실(deregulation of goals)을 아노미의 조건으로 보는 반면에, 머튼은 수단에 대한 규제력의 상실(deregulation of means)에 더 초점을 두어 아노미를 파악하고 있다.

계층적 차이에 관계없이 금전적인 성공에는 대단한 강조점을 두지만, 그 성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강조의 비중이 적을 경우, 이는 수단에 대한 도덕성의 결핍을 낳게 된다.³⁸⁾ 더우기 성공목표의 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수단에의 접근 가능성이 사회성원들에게 불평등하게 주어질 때, 거기에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합법적인 수단에의 이용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일탈행동의 빈도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머튼이 말하는 것과의 반대현상, 즉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수단에 대한 순응이 오히려 아노미를 야기할 수도 있다.³⁹⁾ 예컨대 대학교육을 받았으며 취직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규칙을 준수했으나 기대된 결과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괴리는 아노미 상황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6) *Ibid.*, pp.345~6.

37) R.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arged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216.

38) *Ibid.*, pp.190~3. 머튼의 아노미개념은 중류계층의 성공과 자기이해의 윤리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정당한 성공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조적으로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이상 그 사회는 아노미적인 사회인 것이다.

39) M. Abrahamson, *op. cit.*, pp.79~80.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논자들의 입장은 소외와 아노미를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서 규명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개념이 연원하는 마르크스와 뒤르켐의 논의는 서로 관심의 방향은 다르지만 사회상태에 대한 비판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함의는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될 사회심리학적 관점과는 매우 상이하다.

Ⅲ.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심리학적 관점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시맨(M. Seeman)의 소외론과 스롤(L. Srole)의 아노미아 논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1950년대 말 이후의 미국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소외와 아노미를 여하히 경험적으로 측정하여 유용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구성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시맨과 스롤의 논의에 기초하여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여기서는 이 둘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맨은 소외의 사회사상사적 의미를 대중사회이론(theory of mass society)과 관련시켜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의 소멸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중심적 주제로 하는 대중사회이론은 그 전환과정에 있어서 현대사회구조의 역사적 지향성을 설명하여 주고 이 구조의 심리적 영향을 말해주며 또 파생되는 개인적 행동을 예측케 하여준다. 이러한 전환과정에 있어서 소외는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한편 특징적인 행동을 낳는 결정적인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⁴⁰⁾

우리는 소외의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맨이 소외를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적 특징을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경향으로 ①혈연관계에서 비인격화로의 경향이 증대한다. ②전통적인데서 합리적인 형태로 전환하게 되어 조직화된 형태에서는 관료제가, 기술적인 형태에서는 신념과 가치의 세속화가 지배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③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인간과 제도가 전문화됨으로써 사회적 분화가 증대한다. ④공간적 사회이동이 증대되어 지역적 유대와 대면적 결속을 약화시킨다. ⑤규모의 확대와 대기업·국가 등의 결정이 다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시맨은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앞서 논한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등의 입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외를 야기시키고 이 소외는 정치적 수동성, 인종적 편견, 파업, 대중운동, 정신질환, 학교결석, 자살 등의 행동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⁴¹⁾

40) M. Seeman,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and P. Converse, (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Russell Sage Basic books, 1972), pp.468~9.

41) *Ibid.*, pp.469~70.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경향들은 경험적으로 측정하는데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맨은 이론적으로만 대중사회론과 소외를 관련시키고 소외의 의미를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주관적인 의미로 소외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는 소외가 인간과 사회의 여러 다른 모습들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6개의 의미로 소외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⁴²⁾

첫째, 무력감(powerlessness)으로서의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상황과 조건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와 소외개념을 보다 확대시켜 현대산업사회의 보편적 경향으로 파악하는 베버의 입장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시맨은 무력감으로서의 소외의 의미는 마르크스적 전통을 갖는 많은 학자들의 문헌에서 가장 빈번히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력감을 개인이 추구하는 결과를 스스로의 행동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기대감 혹은 개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나 개연성의 정도가 높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결과에 대한 통제가 외부의 세력, 강력한 타자, 운수, 운명 등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무력감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관점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인 마르크스적 전통과는 구별된다.

무력감에 대한 시맨의 정의는 여러 사회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거나 다소 수정되어 사용되고 있다.⁴³⁾ 이들 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력감은 정치·사회·경제 등의 제문제의 결정에 대해 개인 스스로 자기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개인의 느낌을 지칭한다.

둘째, 무의미성(meaninglessness)은 본질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의 상실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능적 합리성(functional rationality)이 증대한다는 만하임(K. Mannheim)의 주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⁴⁴⁾ 즉 사회가 목표의 능률적인 달성을 위해 그 구성원을 강하게 조직화하면 거기에는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하고 주어진 상황에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위능력, 예컨대 본질적 합리성이 상실하게 되는데 시맨은 이를 무의미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무의미성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42) M. Seeman,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op. cit.*; "Alienation and Engagement", *op. cit.*, 를 참조.

43) M. Levin, "Political Alienation", in Eric and M. Josephson, (eds.), *Man Alone: Alienation in Modern Society*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2), pp.227~39; J. E. Horton and W. E. Thompson, "Powerlessness and Political Negativism: A Study of Defeated Local Referendums." *A.J.S.*, Vol.67 (Mar. 1962), pp.111~30; D. G. Dean, *op. cit.*; A. G. Neal and S. Retti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Alienation", *A.S.R.*, Vol.32 (Feb. 1967), pp.54~63; C. S. Fisher, "On Urban Alienation and Anomie: Powerlessness and Social Isolation." *A.S.R.*, Vol.38 (June 1973), pp.311~26.

44) K. Mannheim, *Man and Society in an Age of Reconstruc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40), pp.58~9.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는데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정의된다. 앞서 말한 무력감이 결과의 통제에 대한 지각능력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의미성은 행위적 결과를 예견하는데 대한 지각능력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 형태에 대한 사회학적인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한 최종적인 상품, 노동과정 및 노동조직에 대해 목적의식이나 기능감을 갖지 못할 때,⁴⁵⁾ 입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이용가능한 정보가 결여되거나 그들간에 차이가 없을 때,⁴⁶⁾ 정치적 결정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때⁴⁷⁾ 무의미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째, 무규범성(normlessness)은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방법(수단)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된다. 가장 일상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위나 부 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제도화된 절차 또는 정당한 기회나 수단이 차단되어 부당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규범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뒤르켐과 머튼에 있어서 아노미는 사회문화적인 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나, 시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시맨은 아노미를 소외의 개념에 포함시켜 하나의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네째, 가치적 고립(value isolation)은 대중문화의 기준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지식인이나 작가들의 역할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시맨은 일반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목표나 신념에 대하여 낮은 보상가치(low reward value)의 부여로 규정한다. 이는 성공이나 유인(attractiveness)의 기준을 거부하는 소외된 예술가, 지식인 등에게서 잘 나타난다.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적응유형중 '개혁'(innovation)이 무규범성의 전형적인 예라면 가치적 고립에 해당되는 것은 '반란'(rebellion)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기소원(self-estrangement, 自己疏遠)은 프롬(E. Fromm)이 말하는 인간이 그 스스로를 타인처럼 느끼게 되는 경험, 밀즈(C. W. Mills)의 자신의 퍼스낼리티가 타인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상황, 리스만(D. Riesman)의 타인지향적 인간 등⁴⁸⁾에서 잘 나타나는 소외의 유형이다. 시맨은 자기소원의 개념을 마르크스가 소외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하였던 바와 같이 노동에서의 본질적인 의미추구와 자부심의 상실로 규정짓고 기대된 미래의 보상에 대한 행위의 의존도, 혹은 본질적으로 보상되지 않은 재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5) R. Blauner, *op. cit.*, pp.22~4.

46) M. Levin, *op. cit.*, p.231.

47) A. W. Finifter, "Demension of Political Alien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4 (June 1970), p.390.

48) E. Fromm, *The Sane Society* (New York: Rinehart: 1955); C. W. Mills, *White Coll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D. Riesman *et al.*, *The Lonely Crowd* (李萬甲外譯, 「孤獨한 群衆」, 서울: 乙酉文化社, 1974).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집단의 기준으로부터의 고립감을 말하는 것으로, 시맨은 고독감이나 거부 및 거절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포용이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개인의 낮은 기대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고립은 소수파 성원, 노인, 병약자, 이방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랏트(H. T. Groat)와 널(A. G. Neal)은 사회적 고립을 개인이 그 자신과 그의 동료들간에 분열을 느끼는 정도로 보고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사회관계가 더 이상 예측적이지도 그리고 지지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⁴⁹⁾ 한편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낮은 사람은 따뜻하고 우애적인 개인적 관계를 느끼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을 느낀다. 이 경우 거부감, 고독 및 비인격화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⁵⁰⁾

시맨이 이상의 6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소외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개념이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판적·철학적 함의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일의 통일된 개념으로 소외를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념정의가 다원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소외의 많은 구성적 차원들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분리가능한 변수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아노미 개념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용하고자 한 일군의 사회학자들로는 맥키버(R. M. MacIver), 리스만, 그리고 스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아노미가 뒤르켕과 머튼 등에서는 사회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노미가 내면화된 개인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사회심리적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쓰이고 있는 것이다.

맥키버는 아노미를 사회적 결속력이 붕괴 혹은 약화된 개인의 심리상태로 본다.

“아노미는……사람들의 마음상태를 나타낸다. 아노미적인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마르게 되고 그 자신에게만 반응하여 누구에게도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의 유일한 신념은 부정의 철학이다. 그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감각의 가느다란 선상위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사회결속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 붕괴 또는 숙명적으로 약화된 마음의 상태이다.”⁵¹⁾

여기서 보듯이 아노미에 대한 맥키버의 입장은 심리학적인 것으로서 아노미는 사회의 구조적 상태가 아니라 마음 또는 정신의 상태인 것이다.

리스만은 아노미를 뒤르켕의 개념적 의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49) H. T. Groat and A. G. Neal, *op. cit.*, p.949.

50) D. G. Dean, "Alienation and Political Apathy," *op. cit.*, p.186.

51) R. M. MacIver, *The Ramparts We Guard*, R. K. Merton, *op. cit.*, p.216에서 인용.

부적응(maladjustment)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다. 즉 개인의 퍼스널리티 구조가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⁵²⁾

아노미아의 경험적 측정에 관심을 갖는 스롤은 사회환경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사회환경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항목을 설정하여 아노미아 척도(anomia scale)를 구성하고 있다. 그는 아노미아를 “자기 대 타자와의 거리감”(sense of self-to-others distance), 혹은 “자기 대 타자와의 소외감”(sense of self-to-others alienation)으로 규정하고 “자기 대 타자와의 소속감”(self-to-others belongingness)을 나타내는 Eunomia와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위치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⁵³⁾ 이와 같은 아노미아 개념은 매이어와 벨(D. C. Meier and W. Bell)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낙담, 절망, 좌절 등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시맨의 소외규정과는 별도로 소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⁵⁴⁾ 그러한 경우에 스롤의 아노미아 척도는 인생의 방향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의 상실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절망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시맨이 소외의 한 차원으로 설정한 무규범성과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아노미아가 가치적 문화의 통합기능의 약화 관련된다면 무규범성은 규범적 문화의 규제기능의 상실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IV. 요약 및 논의

이 글의 기본 목적은 사회학에서 논의되어 온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을 사회구조적 의미와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구분하여 두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소외의 개념이 사회구조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주로 극복되어야 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소외의 원천)를 나타내는 비판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는 마르크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사회구조적 관점을 취하는 소외론자들이 사회구조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배제하여 버리고 개인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두어 소외의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52) D. Riesman *et al.*, *op.cit.*, pp.397~411.

53) L. Srole, *op. cit.*, pp.710-11.

54) D. C. Meier and W. Bell, "Anomia and Differential Access to the Achievement of Goals," *A.S.R.*, Vol.24 (April 1959), pp.189~202; J. L. Simmons, "Some Intercorrelation among Alienation Measures", *Social Forces*, Vol.44 (Mar. 1966), pp.370~2; D. R. Eckart and R. Durand, "The Effect of Context in Measuring Anomia",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9 (summer, 1975), p.199.

아노미 개념의 경우도 뒤르켕과 머튼에 있어서는 사회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뒤르켕에 있어서의 아노미는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에서처럼 비판적 의미가 강하다. 뒤르켕이 이데올로기적인 갈래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지만 아노미 개념은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은유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상태를 나타내는 아노미 개념이 시맨의 경우처럼 주관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소외 개념의 한 차원으로 통합되거나 사회구조적 의미의 아노미가 내면화된 개인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소외의 개념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원천으로서의 사회구조적 의미와 주관적 심리상태로서의 사회심리학적 의미가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의 개념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외의 원천으로서의 구조적 차원과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구별하고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소외의 의미가 명백해지고 소외가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유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구조적 관점은 그 원천에 치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외와 아노미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 즉 일반적이고 확산적인 문화적 조건의 결과(the result of general and diffuse cultural condition)로 보는 입장과 집단의 특수한 요인들(group specific factors)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전자는 뒤르켕, 베버, 머튼 등에서, 그리고 후자는 마르크스에게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⁵⁵⁾ 이들의 주된 관심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상태에 초점을 둔다. 즉 소외와 아노미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소외론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 분명히 소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대중조작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⁵⁶⁾ 이들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소외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간생활의 질(quality)에 관한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객관적 소외로서의 물화의 의미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다.

소외와 아노미의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초점을 두고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시맨의 소외논의는 기왕의 규범적·비판적 소외의 개념과 아노미 개념을 수용하여 소외개념을 경험주의적 사회학의 틀내에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소외의 비판적 의미는 사상되어지는, 다분히 가치중립적 의미를 띠게 되는데 그 결과,

55) L. B. Otto and D. L. Featherman, "Social Structural and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elf-estrangement and Powerlessness", *A.S.R.*, Vol.40 (Dec. 1975), pp.702~3.

56) 鄭文吉, *op. cit.*, p.232.

소외를 비판적·규범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 의하면 소외개념을 심리적 상태에 준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래 개념이 함축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시맨의 소외논의에 대한 비판은 첫째, 특정한 열거와 나열에 불과하여 그런 형태의 분류라면서 없이 많은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선택된 소외차원의 선정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류는 하나의 예시적인 것일 뿐 체계적 유형론(systematic typology)은 되지 못한다.⁵⁷⁾ 이에 대하여 시맨의 입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통계적 기법, 예컨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차원간의 중복성을 없애고 높은 상관관계를 확보함으로써 그러한 비판에 대응하려 한다.⁵⁸⁾ 또한 시맨의 소외차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소외차원들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차원들간의 논리적 관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기도 한다.⁵⁹⁾

둘째로 시맨은 소외의 개념에 아노미 개념을 포함시켜 소외의 차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료한 소외의 개념구성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이나 보수적 지향을 갖는 아노미개념과 급진적인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을 결합하여 소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상사적인 흐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적 변형은 흥미로운 지식사회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은 외부세계와의 관련성에서 비롯된다는 명제를 상기해볼 때 가치중립적 원칙하에 소외와 아노미를 규정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설명력을 갖는다. 그것이 통계적 정교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검증된다 할지라도 사회실재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추상화된 신비성을 지닐 뿐이다. 따라서 소외와 아노미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와 지식은 소외된 사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사회심리학적 관점이 가치중립적인 견지에서 소외와 아노미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이 경우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아노미를 규정하는 머튼의 논의도 포함된다). 소외와 아노미가 애초에 함축했던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치중립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치가 실재증정의 이데올로기로 변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회심리학적 관점이나 머튼의 사회구조적 관점은 가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와 아노미의 사전적 규정(기존 사회적

57) M. B. Scott, "The Social Sources of Alienation", in I. L. Horowitz, (ed.), *The New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p.250~1; J. Israel, *Alienation: From Marx to Modern Sociolog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1), p.214.

58) A. G. Neal and s. Rettig, *op. cit.*

59) C. J. Browning *et al.*,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Letter to the Editor), *A.S.R.*, Vol.26 (Oct. 1961), pp.780~1; H. Barakat, "Alienation: A Process of Encounter between Utopia and Reality", *B.J.S.*, Vol.20 (Mar. 1969), pp.1~10.

조건에 비판적이고 이상적 조건을 제시하는 마르크스와 뒤르겐의 논의)이 갖는 가치와는 다른 형태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소외와 아노미의 개념화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성과들이 본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또한 원천과 결과들에 대한 구별이 모호했다면 앞으로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첫째, 사회심리학적 차원들이 동일한 수준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둘째 원천을 나타내는 사회구조적 의미에서는 그 원천들을 명확히 검토하여 사회심리학적 의미와 높은 관련성을 갖는 구조적 차원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와 조건에 대한 비판적 개념으로 출발한 소외와 아노미를 과연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개념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로 남아 있게 된다.

Summary

Alienation and Anomie in Sociology

Kim Jin-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lassical and contemporary concepts of alienation and anomie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sociology. I first examine basic differences between social struc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alienation and anomie, and then consider scholars' claims in the light of those differences.

Alienation and anomie are complex concepts embracing multiple sources and individual states of mind.

The perspectives about the source concern social structural bases, for example, K. Marx's condition of work of capitalist society, E. Durkheim's social deregulation, M. Weber's bureaucratization, R. K. Merton's disjunction between cultural goals and opportunity structures. I explore these sources of alienation and anomie.

The perspectives about the meaning of alienation and anomie involve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s 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object. The standard references of this issue are M. Seeman who clarifies six historical thematic variants and L. Srole who conceptualizes anomia. This perspective defines alienation and anomie not as an objective attribute of social structure but as individual's subjective states and perceptions.

Marx's alienation and Durkheim's anomie were concepts for a critical attack on the dominant value and organizations of industrial society. Social psychological definition of alienation and anomie has confused and altered the critical meanings of the concepts under the guise of value-free sociology.

The conceptual transformation of alienation and anomie provides us with useful informations of the sociology of knowledge. Considering that propositions of the sociology of knowledge are relevant to external social reality, social psychological definition is abstract and alienated thinking. Although it is said to be value-free, it is ideological in its identification with existing social structure.